

필자가 젓소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지 금년이 20년째이다. 중간에(1989~1990년) 휴업을 한적도 있었지만 나는 낙농외에 세상물정 모르는 白面酪生(한껏 낙농만 알고 세상물정을 어두운 사람)이다.

1974년 군복무를 마친 후 바로 낙농에 입문하여 이

나는 유질향상 이렇게 했다.

목장특성에 맞는 각자의 유질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동녘목장 김 경 근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이천리 산 40-1)

듬해 부터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납유를 시작해 한때는 목장관리인을 두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현재는 착유우 22두와 육성우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 목장위치는 처음 목장을 한 곳 경기도 고양에서 이전해 온 곳이다. 우사의 형태는 옛날 우사형태이고 착유시설은 헤링본 파이프라인이다.

고품질 원유생산, 신낙농 창조

우리나라의 원유가격은 1972년 부터 지방유를 기준으로 유대를 정산하여 그나름대로 유질을 향상시켰으며, 지방유가 유대결정의 요인이 된 것은 가수(加水)을 없애기 위해서다. 지금 생각하면 구상유취(口尙乳臭)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마치 지금의 원유가격차등제에 대한 우리들의 곤란과 같으리라 본다.

필자는 원유가격차등제의 유예기간인 3개월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 기간동안에 내가 한 일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일이었다.

착유와 세척방법등 여러가지를 변경해가면서 그때마다 샘플을 채취해서 집유소에 가서 검사를 수없이 많이 받았다. 집유소 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검사를 많이 받았다. 특히 CMT 검사는 개체별로 일일이 검증을 받아야 했으므로 검사하는 쪽이나 필자나 둘다 죽을 맛이였다.

유방염은 개체별 병적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체별 검사는 필수적이나 대개의 낙농가의 경우 개체별 병적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알려져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유방염이 전체 4꼭지에 다 걸리게 되면 도태해야 하나 영세낙농가의 경우 도태가 경제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유방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도태지경까지 가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체의 유방염 감염여부, 유방염 경중상태 등을 완전히 파악하여 유방염이 전혀 문제가 없는 개체부터 문제가 있는 개체로 착유순서를 정하면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원유가격차등제 유통기간동안 처음 세균수와 체세포수를 검사해보니 세균수는 10만, 체세포수는 89만이 나와 체세포수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예상은 약 20만이 하겠거니 생각했었다)

이후부터 개체별로 체세포수를 측정해 보니 전체 원유의 체세포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조정이 가능해졌다. 세균수는 10만에서 전착유 실시하니 7만이 나왔으면 세척방법에 따라 세균수가 다음과 같았다.

- i) 전착유를 하니 68,000~70,000마리
- ii) 전세척을 하니 30,000마리 내외
- iii) 소독약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하니 10,000마리 이하

처음 세균수가 10만마리 였으나 전착유, 전세척, 소독약과 세제를 사용하니 세균수가 만마리 이하로 떨어졌다.

착유걸레는 두당 4장(총 70~80장)을 사용하며 수건은 서울의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이를 반으로 잘라 바느질을 하여 사용해 비용도 절감했다.

세척순서는

- i) 물수건으로 유두를 세척
- ii) 세제와 소독약으로 닦아내고

iii)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여러장 사용한다.

이때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과연 마른 수건을 어디에 두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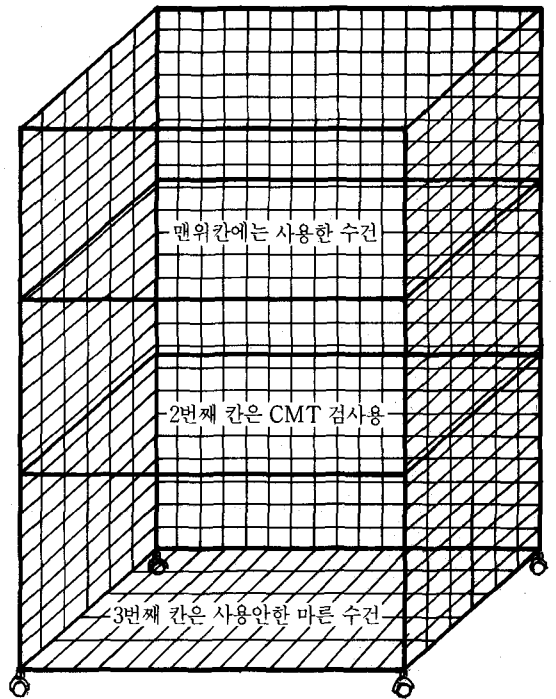
필자는 요즘 패션가구다 해서 TV광고에 나오는 철망으로 만들어진 바퀴가 달린 삼단짜리 철망박스를 이용한다.

첫번째 위칸에는 사용한 수건을 올려 놓고 젖꼭지가 세개인 개체의 경우 남은 라이너를 올려 놓는데도 쓰인다.(위생적이다)

가운데 칸에는 유방염검사 측정 시약 및 시료를 넣어둔다.

맨 아래칸에는 사용안한 마른 수건을 두고 사용한다.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 착유중 발로 툭툭 차면 움직여 이동하기도 쉽다. 인근 이웃 낙농가에게도 소개하였으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적은지 아직 알려준 것에 비해 사용능가는 적다. 이글은 읽는 낙농농가들께서는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면 편리성, 위생적인 면에서 큰 만족을 얻을 것이다.





동북목장 전경

전착유와 젓꼭지 오염제거 효과동일

대체로 소독약을 더러운 물에 풀어서 쓰는 농가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깨끗한 물에 소독약을 풀어서 써야 한다. 그래야만 세균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착유기와 냉각기는 이음새부분을 철저히 닦는다. 아무리 깨끗하게 원유를 착유했다 하더라도 이를 잘 냉각 보관하지 않으면 세균수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일반 낙농가들은 전착유를 하면 세균수를 많이 줄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상 그렇다. 그러나 전착유보다 중요시해야 할 것인 젓꼭지에 묻은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필자가 원유가격차등제 유예기간동안에 실험한 예로는 전착유한 원유의 세균수와 젓꼭지의 오염을 완전히 제거한 원유의 세균수가 같았다.

요즘은 착유한 후에 오늘 원유는 세균수 얼마에 몇 등급일 것이다라면서 거의 맞는다. 단지 보름에 한번씩 측정하는 것을 조금 늘려야 공평할 것 같다.

체세포수 영세낙농가에겐 난제

조합에 납유하는 우리에게도 현재와 같이 검사공영

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행운이다.

많은 낙농가가 샘플채취과정에서 부터 많은 불신을 갖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도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체세포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방염이 걸린 개체를 도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영세낙농가에 있어서는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따라서 현재의 체세포수 등의 기준은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조정이 어렵다면 적용기간을 늦추어야 한다.

원유가격차등제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고품질 원유생산으로 경쟁력 완비라는 이상적 목표와 이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라는 「당근」이 아울러 제시·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유가격차등제 이전에 이미 원유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해 규모의 적정화(1일 납유량 : 500kg선) 유지, 문화생활 향상을 목표로 정진하겠다.